

올해 경제성장률 2.7% 가능할까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2분기 전기 대비 0.7% 증가... 하반기 내수 더 어려울 듯 · 장밋빛 전망도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치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0%대 성장'이 3분기 연속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던 2014년 3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임시공휴일 지정 등 각종 부양책을 썼고, 상반기에만 재정을 60% 넘게 끌어다 썼다. 그 덕에 2분기 전기 대비 내수,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에서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복세는 미약했다.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놔도 성장엔 여전히 '0%대'에 머문 것이다.



드론으로 네트워크 품질 측정 KT는 하계 휴가철 주요 휴양소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집중감시 체계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KT 직원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드론을 이용한 네트워크 품질 측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블랙시트(영국의 EU 탈퇴) 여파 및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망한 2.7%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내려잡은 바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은이 제시하는 2.7%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 어느 정도 성장률을 확보해야 하반기에 좀 부진하더라도 제시한 수치가 가깝게 나오는데 상반기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부터 개세 인하가 종료되는데다 김영란 법 등의 변수가 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며 "결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으로 이러한 부진 요인들을 완화하

는 지가 관건이다. 대외부인이 하반기에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한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일단 0.7%라는 성장세가 4분기까지 지속된다면 연간성장률이 2.8%가 넘는다"며 "2분기 성장률만 보면 낮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0.7% 성장이 1분기 대비, 작년 2분기에 대비한 기저효과와 반사효과가 많이 섞인 숫자"라며 "하반기의 경우 모든 전망기관이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증가세가 커질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간성장률은 2%대 중반

정도(2.6%)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대다수의 연구기관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2.6%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로 예측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5%를, 한국경제연구원은 2.3% 전망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출 개선, 추경 등 정책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인 장밋빛 전망도 조심스레 퍼져가고 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는 1~2분기에 비해 경제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무엇보다 수출경기가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수출 개선이 제조업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쉐보레 '하계 고속도로 서비스 캠페인'

29-31일 화성휴게소 목포방향 · 죽암휴게소 부산방향서

쉐보레(Chevrolet)가 휴사철을 맞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하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하고 수해차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리비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쉐보레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2016하계 고속도로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목포방향과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부산방향에서 실시된다.

캠페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 안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와이퍼 블레이드, 전구류 등의 소모성 부품과 냉각수 및 엔진 오일 보충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문 차량정비 서비스 직원들이 여름철 차량관리 및 안전 운전 요령을 안내하며, 문제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밖에 쉐보레는 수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여름철,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해 발생 시 긴급출동 및 각종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해 차량 입고 시 차차보험 미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의 50%를 감면해준다. /군산=문정곤 기자

"소득 오르면 금리인하 요청을"

'이자·수수료 경감서비스' 지난해 26만5000명 혜택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소득이 증가해 상환능력이 좋아졌다면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면 저금리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금융감독원은 26일 금리인하 요구권과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등 알아두면 유익한 '이자·수수료 경감서비스'를 안내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취업 및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심사를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여 준다.

희망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 작성 및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심사·결정해 5~10영업일 이내에 통보한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FAX 및 인터넷 등 비대면신청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제한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년 한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은행권 13만7000명, 2금융권 12만8000명으로 총 2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평균 인하폭은 0.7%

포인트였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서민은 생계자금, 창업·사업운영자금 및 전환대출을 제공하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유용하다.

새희망홀씨(생계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퀴달린(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은행이 2금융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생계자금과 전환대출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6~10.5% 수준이다. 창업·사업자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무등급, 0등급 포함),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이내다.

이와 함께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를 위해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을 소개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한국이 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CSS맞춤대출'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 금리 등을 안내해준다.

이밖에 금감원은 무통장거래 고객에게 은행이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비스도 유용하다고 소개했다. /뉴스

2분기 카드사용액, 전년 대비 14% ↑

메르스로 감소한 숙박·대중교통·레저 이용실적 회복 영향

가계용(6.1%)보다 4.0%포인트 상승한 10.1%로 늘었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으로 여행 및 출장 등을 자제하면서 감소했던 숙박, 대중교통, 레저업종의 승인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1년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숙박업종은 11.1%, 대중교통은

38.8%, 레저타운은 83.4% 뛰었다.

이들 업종 외에 부동산중개업과 애완동물 관련업종의 승인금액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중개업종의 전체카드승인금액은 2025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2% 증가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카드

납부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애완동물 및 가축병원의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1339억원, 221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9%, 15.6% 증가했다.

카드 유행별로는 체크카드의 강세가 계속됐다. 공과금을 제외한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21.3%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결제금액은 4만4945원으로 1.2% 하락했다. 공과금을 제외하면 3만9973원으로 분기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4만원대를 밑돌았다. /뉴스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이 1년 전보다 14%가량 늘었다. 메르스 여파로 감소한 관광업종 등의 실적이 좋아진 덕분이다.

여신금융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7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3.8%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10.4%)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3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